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연구



김준섭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통일안보연구본부장

이 연재물 지난 2022년 2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연구’ 제하(題下)로 북한 학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 연구원 김준섭 본부장의 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1948년 9월 정권 창립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북한 통일전선전술(The United Front Tactics)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는 본 연재물이 북한정권의 속성(屬性)을 적확(的確)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원용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 주)

I. 프롤로그

분단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정권의 ‘공산주의 대남 통일전선전술’은 시대별로 적지 않은 부침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즉 김일성시대에는 “남조선혁명에 있어서 통일전선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화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북한은「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해 그 중요성과 기초를 지속하고 있다. 이어 김정일 시대에는 2000년대 남한 정보통신 발전과 인터넷 사이버환경의 급성장에 따라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친북세력과의 연계공간 확보 및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009년 2월 북한은 대남 및 해외 공작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당 35호실과 작전부를 당에서 분리하고 인민무력부 정찰국과 통합했다. 사이버조직을 포함한 정찰총국을 출범하고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대남 공작조직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이어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지능화된

통일전선전술로서 사이버(Cyber) 활동 기반의 ‘하이브리드(Hybrid) 통일전선전술’로 변화하고 있다. 대남 하이브리드 통일전선전술 활동은 주요 선전선동 웹사이트, 사이버해킹, 난수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전선전술’의 기원과 제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통일전선전술’이 도입된 시기의 김일성정권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 배경과 당시 주요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형태로 발전 전개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로 원용된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통일전선전술’에 관한 문헌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한국과 북한에서 발행된 문헌과 연구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는 문헌 중심내용분석 방법을 기본 연구방법으로 하면서 연대기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통일전선전술’은 레닌의

통일전선 사상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를 근간으로 성립되어 김일성·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를 이어오면서 기본 개념과 목표의 기초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방법의 적용은 효율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지침의 수행단계인 ‘통일전선전술’의 변화상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목적으로 문헌연구방법과 연대기적 접근방법에 기초하는 한편, 북한의 공식적인 ‘대남혁명전략’을 준거로 삼기 위해 접근이 가능한 북한과 국내의 1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지침을 실행하는 ‘통일전선전술’의 특성과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 국내의 연구기관과 방첩기관 및 공안기관, 법집행기관 등의 자료도 폭넓게 참고하였다.

북한학 분야의 연구는 자료접근의 제한이 많고 획득된 자료일지라도 북한체제의 속성상 자료의 신빙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연구자의 충분한 연구자료 획득과 검증을 요구하고 연구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서적, 간행물, 보고서, 학술지, 학위 및 논문자료, 남파공작원 출신 인물의 증언 인터뷰와 남파간첩 및 지하당 간첩 사건의 법원 판례 자료들 등의 북한 내부에서 발행된 원전 자료를 다양하게 참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남혁명전략’의 개념과 기원 배경을 포함한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까지의 시기별 최고지도자가 추구해 온 ‘대남혁명전략’과 ‘통일전선전술’

의 전개양상을 각종 문헌과 실제 전개된 사례를 활용해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향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전개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 입장에서의 입체적인 전략전술 변화 요인이 필요하므로 북한 내부의 변화 요인과 국제적인 측면의 환경변화, 그리고 대남환경의 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통일전선전술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은 통일전선전술이라는 분야의 주제 특성상 자료의 접근성 제한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큰 틀에서 국내와 북한 출신 연구자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전술을 최고지도자의 집권 시기별로 구분하여 연대기별 지도자가 추구한 통일전선전술을 연혁적 고찰을 통해 그 시대의 대남혁명전략 지침을 수행했던 통일전선전술의 특징을 도출하는 방법과 둘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지침을 수행하는 대남공작 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들의 간첩 사건 진술과 판결사례를 고찰하고, 남파공작원 출신 인물과 인터뷰를 통해 직접 경험한 내용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실체를 밝히는 연구였다.

이런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이 1945년 이후 2011년까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전개한 공산주의 전통방식의 통일전선전술을 고찰한 바탕 위에서 2012년 김정은 체제출범 이후 전통방식의 통일전선전술을 통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통일전선전술 전개양상 즉, 사이버기술융합의 ‘하이브리드 통일전선전술’로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